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군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였으며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꿈결에도 밟고 싶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사회주의호전에 한 몸바칠 각오를 안고 그 어떤 명이나 보수도 바람이 없이 군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군인가족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성대히 열린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군인가족사업중시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군인가족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속에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인가족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울것을 결심하고 계급투쟁의 진조선에 선 총대혁명가들이고 최고사령관의 가장 가까운 전우들이 남편들과 마음도 발걸음도 하나로 맞추어나가며 최고사령관을 대신하여 병사들의 생활을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듯이 돌봐주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인가족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총잡은 남편들이 집적정을 하지 않고 혁명사업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들의 뒤바라지를 잘하며 언제나 화선에 선 병사의 자세와 립장에서 살며 투쟁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2기 제5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종합공연을 관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구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공연에는 조선인민군 제564군부대, 제966군부대, 제233군부대, 제593군부대, 제287군부대, 제630군부대, 제380군부대, 제243군부대, 제468군부대, 제600군부대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이 출연하였다.

합창편곡 《영원한 미소》, 《사랑의

미소》,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사랑송이야기 《백두산일가분들과 사회주의》, 실화극 《아버지》, 독창과 합창 《우리 원수님》, 막간극 《되돌아선 병사의 어머니》, 기악과 노래 《웃음꽃이 만발했네》, 시이야기 《원한의 추천다리》, 실화와 노래 《원수님의 축복》, 독연 《중대군관의 안해》, 북과 기악 《우리 앞날 밝다》, 실화 《우리 마음도 결사옹위의 향로를 날은다》, 합창 《불타는 소원》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연이 끝난 다음 무대에 오르시어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앞에서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늘 사진촬영장에서 보고싶고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의 안해들이며 어머니들이 동지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우리 당을 굳게 믿고 따르는 동지들의 깨끗한 마음에 감사하고 또한 동지들이 지닌 남다른 혁명열의, 혁명적관주의를 보고 대하면서 받은 충격이 너무 크고 꼭 인사말을 전하고싶어 나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저렇듯 강의하고 따뜻하고 다정하고 미더운 저 동지들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전우들의 안해들, 위대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우리 후대들의 다심한 어머니, 총잡은 남편들과 한전호에서 우리 혁명을 사수해나가는 믿음직한 혁명의 부사수들, 우리 혁명의 영원한 작식대원들이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지들과 같은 강인하고 위대한 녀성혁명대군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심없이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지지해주는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남편들과 자식들이 혁명에 더없이 충실하고 조국번영을 위한 생년길을 맨 앞장에서 더욱감히 헤쳐나갈수 있도록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군인가족들이 우리 혁명의 작식대원으로서의 본분을 더 잘해주어야 하겠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나의 전우들이자 동지들의 남편들, 자식들이 우리 인민군대의 생활을 우리 당의 딸, 우리 당의 며느리들이 동지들에게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고 언제나 남편들과 자식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열성자대회 참가자들과 전체 인민군군인가족들에게 전투적인 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면서 폭풍같은 《만세!》를 터쳐올리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5월 9일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5월9일메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을 여러차례 다녀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깊이 전하는 현지지도요시비를 진립하자고 하시면서 몸소 그 자리까지 잡아주시였으며 장군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오시였던 력사의 날을 잊지 말고 일을 잘해나가는 의미를 담아 공장의 이름을 5월9일메기공장으로 부르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알깨우기호동, 메기호동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의 생산실태와 경영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정결한 과학연구기지를 방불케 하는 산뜻하고 아담한 공장에서 메기를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로력과 생산면적을 늘이지 않고 다음해부터 100이상의 메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

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양어부문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양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5월9일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기간 메기양어를 잘할수 있는것은 자나깨나 위대한 장군님을 생각하며 양어를 잘할때 대한 당정책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였기때문이라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5월9일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나라 메기양어의 개척자, 선구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더 많은 메기를 생산하는것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깊이 빛내여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중흥7련

대징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58군부대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항공군령도업적이 집대성되어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사적교양실을 새로 꾸리며 비행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도보비행훈련장, 탁상비행관습실, 비행조종원습관습실을 돌아보시면서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사들에게 불리한 날씨조건에서의 비행방법을 잘 교육시키고 부단한 좌석 및 련습기재훈련을 통하여 완전히 숙련시켜 그들이 언제 어느 때 그 어떤 불리한 정황이 조성되여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사들이 육체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

로 매 항공 및 반항공군사단들에 실내수영관과 실내체육관, 야외체육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체육시설들을 현대적으로 꾸려주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공중매복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이 시작되자 조조건을 역세게 틀어잡고 하늘로 날아오른 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훈련명령관철의 나날에 다져온 높은 비행술을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바람부는 지휘소의 로대에 서시어 조국의 하늘을 가르며 과감하게 기동하는 붉은 매들의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보시면서 언제 보아도 우리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정말 잘 탄다고, 훈련을 잘한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훈련에 참가한 비행사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훈련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아주시 추격기 302호기를 돌아보시면서 비행사들과 기술군무성원들이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열렬한 호모심을 안고 사적비행기관리를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침실, 식당, 취사장 등을 돌아보시면서 비행사들의 생활을 친어머니심정으로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침실에 들리시어 비행사들을 만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침대는 편안한가, 세면장은 어떻게 리용하는가를 물어주시고 태양열물가열기를 설치해주는것을 비롯하여 비행사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비행사들이 당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면 언제든지 출격할수 있게 경사적인 전투동원태세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함으로써 새 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집단적혁신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비행사들, 기술군무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희천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강계고려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보통문거리고기상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룡성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룡전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남흥정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평생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어머니, 절세의 애국자의 한성이었다.

자신께서는 세월의 눈비를 다 맞고 그 어떤 고생을 겪을지언정 인민들은 언제나 행복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웅심깊은 마음이었다. 지금도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펼쳐진 바다가 되고 쌓이면 하늘에 닿을 그의 업적을 합치면 오직 인민뿐이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들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었다.

그 뜻을 깊이 간직하신 아버지장군님이시기에 일군들을 만나시여셔도, 이 땅의 방방곡곡 일터들을 찾으시여셔도 첫 물음은 인민에 대한 물음이었으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사소한 부주점도 허용하지 않으셨다.

주체70(1981)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업을 앞둔 평양의 청류관을 찾으셨다.

새로 지은 금양분사기지를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이 식사하는 시간을 몇분으로 타산했는다고 알아보시었다. 식사시간을 40분으로 정하였다는 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한동안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다가 40분이면 너무 짧게 타산했다고, 집에 반가운 손님이 오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청류관을 찾을때 그 때 식사나 한그릇씩 나누고 그저 헤어졌는가, 이야기도 나누고 인상깊게 한때를 즐겨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의 생각에는 한시간반도 짧

을것 같다고 하시었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우리가 돈벌이나 하자고 술한 자금과 재물을 들여 이렇게 훌륭한 식당을 지어놓는것은 아니라고, 인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마음껏 요리하면서 즐겁게 휴식하도록 하자는것이이라고 하시며 시간타산을 다시 해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흔히 제일 인정많은 사랑에 대하여 말할 때 부모의 사랑을 꼽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부모의 사랑에도 비기지 못할 크나큰 사랑으로 온 나라 대가정을 품고 두 돌보신 인민의 자애로운 친어머니이시었다. 외진 산골이나 섬마을, 떠나면 북방의 산촌에까지 그의 다심하신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주체88(1999)년 여름 어느날이었다. 량강도 대흥단군종합농장 홍암분장(당시)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 재대군인의 가정을 방문하시었다.

주인내외를 만나신 그이께서는 생활형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러시고나서 가정용전기제품도 보내주고 세간살이도구도 마련해주자고 하시었다. 세간난 자식의 살림살이를 보살피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생활의 구석구석을 헤아려주시는 그이께 그들부부는 부모들도 아직 와보지 못한 자기 집에 오늘 장군님께서 친람으로 오셨다고, 정말 고맙다고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

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호랑처럼 웃으시며 고시하시었다. 아, 거야 웅당 내가 제일 먼저 찾아와야지, 동무네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해서 말이요. ... 하지만 그이께서는 고맙다고, 그

러시고는 오늘 가정방문을 왔는데 어떻게 그냥 헤어졌는가고 하시며 새 집앞에서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날의 기념사진은 위대한 장군님을 친어머니로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공화국의 참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는 뜻깊은 기념사진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늘 우리 인민은 참으로 훌륭한 인민이라고, 우리 인민에게는 《위대한》이라는 말을 붙여야 한다고 교시하신 것이었다. 그이에게 있어서 인민은 하늘이었고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강추위가 계속되던 1월 어느날 깊은 밤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려차는 자강도를 향해 달리고있었다. 그이께서 계시는 려차안에서 새벽 3시가 넘도록 불빛이 꺼질줄 모르자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이제 새날이 시작되었는데 좀 쉬시기를 말씀드리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 고맙다고, 하지만 강행군길이 아닌 가고 하시며 그에게 자신과 함께 다니면서 수고가 많은데 후날 우리 인민들이 모두 잘살게 될 때 오늘을 옛 말처럼 추억하자고 하시었다.

이날 이른 아침 강계에 도착하신 그이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새로 건설한 중소형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시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다. 지방의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들이 마련해놓은 곳에 속소를 정하고 휴식하시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고맙다고, 그

러나 전체 인민이 강행군을 하는 때인데 어떻게 따뜻한 온돌방을 찾아다니겠는가고 하시며 받들어주는 인민들을 생각하여서라도 나는 더 긴장하게 강행군을 하여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속소를 려차에 정하기로 하였고, 려차에서 침식을 하여야 계획한 대상들을 이틀동안에 다 볼 수 있다고 하시었다.

언제나 야전려차를 집무실로, 속소로 정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견고결연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장엄은 끝이 없었다.

온 나라에 기적과 비약의 활력을 부여주시며 그이께서 끊임없이 올려가신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는 동해지방의 대화화공업기지들을 려에서 찾으신 새벽길에도, 동해지구에서 서해지구로 하루밤사이 단행하신 1000여리의 강행군길에도 새겨져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12월에도 불변한 몸이신에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하나음악정보센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에 거룩한 자욱을 남기신 장군님의 모습을 오늘도 인민들은 눈물겹게 이야기하고있다.

진정 그이께서 한평생 견고결연하신 167만 4 610여리의 현지도의 길은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철야강행군과 같은 전설적인 이야기로 엮여진 애국애민헌신의 길이었다. 하기에 공화국헌신의 길은 우리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쌓으면 하늘에 닿을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김정일장군님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못하며 자애로운 인민의 어머니로 길이 경모하는 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철령아래 사고바다

지난 7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행군도 고산망에 펼쳐진 과수의 바다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경도의 발자취가 굵어붙어 어려웠던 철령아래에 펼쳐진 대규모과수농장을 보시며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세계굴지의 청춘과원으로 일신된 고산과수농장의 력사의 첫페이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시었다고 하시었다.

주체100(2011)년 6월 고산과수농장을 찾으시고 과수농장이 짧은 기간에 굴지의 현대적인 과일생산기지로 전변되었고 하시면서 지난날 땅이 얼어진 고산, 바람세차 풍고산으로 불리우면서 사람 못살 고장으로 소문이 났던 고산망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사회주의 무풍도원으로 그 이름이 빛나게 되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추억하심 경에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장군님 뿌리신 애국의 씨앗들

유복자공장

지난 3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신 천지문화유공장도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웠던 곳이다.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되고 콤포유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실현한 수화화된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원수님께서 장군님을 추억하시었다.

주체100(2011)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애국업적에 의하여 탄생한 공장, 장군님께서 단신으로 겪으신 고생과 맞바꾸어 후대들에게 물려진 이 공장에 바쁘어 이처럼 현대화된 훌륭한 공장을 장군님께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을 허비한다고, 천지문화유공장은 유복자공장이라고 하시었다.

내외호전세력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흑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허러머를 졸라매야만 했던 고난의 행

군, 강행군시기에 인민경제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유휴유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시고 공장터전도 잡아주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유휴유공업을 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공장을 종합적인 유휴유생산지지로 현대화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 공장을 보시면 너무도 기뻐 환하게 웃으실 장군님의 모습을 그리시며 원수님께서 이 공장 하나만 놓고 보아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셨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세기와 세대를 이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치신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근 정성제약종합공장을 찾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0(2011)년 2월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이 공장을 찾으셨던 날을 감회깊이 더듬으면서 정성제약종합공장은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기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유산이라고 하시었다.

정성제약종합공장은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예방치료에 필요한 여러가지 약품들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현대적인 제약생산기지로 일떠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해에까지 그곳을 찾으시어 효능높은 약품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라는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야 한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로새기신 숭고한 애국의 뜻을 가슴깊이 간직해가는 근로자들

《지구촌에 이런 나라는 없다》

재우즈베끼스판동포들과 나눈 대담

지난 11월 기자는 평양고려호텔에서 조국을 방문한 신 이리나, 김 스베들라나 재우즈베끼스판동포들을 만났다.

기자: 여러분들을 만나 반갑고 기쁘다. 고국방문을 환영한다.

신 이리나: 감사하다. 우리는 생전 처음으로 고국에 왔다. 후손이 조상의 태가 물린 고국땅을 밟은 소감은 이루 다 말할수 없다.

기자: 제일 인상적인것은 무엇인가.

김 스베들라나: 김일성주석의 고향지방문이다. 주체가 낳고 사람이 된다는 초가집과 가장절물들과 농쟁기들을 보면서 그분의 일가는 당시 벌을 일구고 농사짓는 조선의 어느 농부가 다름없는 소박하고 근면한 평민의 가정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력사는 많은 명인들과 위인들을 기록하고있지만 김일성주석처럼 빈농가의 가정에서 탄생하시어 진정으로 민족의 아들, 나라의 아들이 되시어 한평생을 다 바쳐 나라와 민족앞에 그처럼 큰 공적을 남긴 위인은 없었다. 그분께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셨다는 이민주권은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머니로 추앙받으신 위인 중의 위인만이 내놓을수 있는 인민 사랑, 인민중시의 제일가는 리념인 것이다. 여기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력사적은공, 고국땅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신 20세기 정치거장의 업적이 다 있다는것을 만경대방문을 통해 깨닫게 됐다.

신 이리나: 나 역시 그러하다. 만경대방문을 통해 김일성주석의 특이한 성품과 애국적헌생에 대해 깊이 리해하게 되었다. 고국인민들은 물론이고 각이한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찾고있는것을 보면서 김일성주석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신가를 알수 있었다.

기자: 지금 사회주의명명국건설을 하고있는 공화국의 실상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여쭙는다.

신 이리나: 우리 동포사회에도 이미 알려졌지만 바이지만 나라가 강하고 인민들이 유족한 생활을 하는 강성국가건설은 김일령도자께서 구상하신것이고 그분의 유훈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평양의 여러곳을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명명국건설의 현실을 목격하였다.

김 스베들라나: 거러나 주력지구들, 문화기관들과 공공건물들이 그 공원이요 유원지들을 보면서 현대적이고 문화적이며 또한 생태환경이나 생활환경과 같은 모든 면모가 아름답고 훌륭하며 그에 걸맞게 사람들의 인격과 문화수준도 명명하게 개화하고있다는것을 대담 알수 있었다. 김일령도자께서 반공화국적대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을 제압하고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시어 오늘과 같은 현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가는 곳마다에서 실감할수 있었다.

신 이리나: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앞에서 조금도 낙망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앞을 보며 살도록 하신 김일령도자

의 선견지명의 가르침과 비범한 령도에 의해 시련의 흔적이 다 가시고 부흥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것을 목격하게 됐다. 그분의 선군정치가 아니었다면 열백년도 넘어지고 다시는 추서지 못했것이라서 이것이 고국인민들의 하나같은 목소리였다.

김일성주석과 같은 위대한 김일령도자님을 령도자로 모신것은 민족의 행운이다.

김 스베들라나: 옳다. 조선민족은 령도자복을 타고났다. 오늘은 또 김정은령도자를 모시고있다. 대대도 위대한 령도자를 만난것은 행운 중의 행운이다.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은 지구촌 그 어디도 없다.

유류야동병원, 김수물놀이장을 돌아보면서 김정은령도자의 위인상을 알게 됐고 주력지구들과 대중봉사기지를, 문화생활시설이 준비하게 되었고 있었는데서 그분의 지도력과 덕행이 얼마나 출중함을 잘 알수 있었다.

신 이리나: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일체를 이루고 강성국가를 건설하고있는 현실을 보면서 조선은 인류리상향의 현주소라는 감동을 금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아름답고 풍요한 삶의 터전으로 다지며 강하고 슬기로운 민족의 모습을 세상에 펼치는 고국인민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기자: 모처럼 만나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사의를 표한다. 건강함 몸으로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기 바란다. 감사하다.

조선의 국력 - 일심단결

세상을 둘러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제나름의 국가발전전략과 방식을 가지고있다. 유리한 지정학적위치와 풍부한 자원을 위주로 하여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나라도 있고 발전된 경제력을 기본으로 하여 국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나라들도 있다.

주체74(1985)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단결은 일심단결이라고, 우리 당은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일심단결은 자신의 혁명철학이라고 하시었다.

인류력사를 더듬어보면 사회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 정치가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일심단결을 자신의 혁명철학이나 신조로 삼고 정치활동에 활용한 위인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장 숭고한 사랑과 믿음, 끝없는 헌신으로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가꾸시었다.

인민들과 병사들을 찾아 삼복철도 마다하지 않고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었고 오성산칼벼랑을 사생결단의 의지로 넘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에 남기신 가장 귀중한 유산이다.

일심단결의 력사는 오늘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곳곳이 이어지고 더욱 강화되고있다.

그이께서는 일심단결은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 하시며 인민의 복위향상을 위해 자신의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

인간 한 외국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취미에 대하여 말한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것은 인민들과 군인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것이라고,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돌아오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티를 같이하는것이 나의 가장 큰 보람이고 락이라고 하시었던것이다.

이런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사는 인민이기에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오직 령도자만이 준게 믿고 받들며 애국정열을 다해가고있다는것이다. 모 든것이 돈이나 권력에 의하여 좌우되고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야말로 공화국의 제일가는 재부이고 국력중의 국력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에 남기신 가장 귀중한 유산이다.

일심단결의 력사는 오늘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곳곳이 이어지고 더욱 강화되고있다.

그이께서는 일심단결은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시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 하시며 인민의 복위향상을 위해 자신의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

이것이였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애민의 세계에 매혹되어 사람들은 그이를 우리러 인민이 사랑 하는 우리 령도자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영국신문 《더 뉴 위커》는 《일심단결된 조선은 계속 전진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혁명은 내는 바뀌고 세월은 흘러도 단결의 중심, 일심단결의 전통, 혁명대오의 순결성은 확고히 고수되고있다. 김정은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은 그에 대한 열렬한 흠모심과 절대적인 신뢰에 그 기초를 두고있다. 조선인민은 령도자에게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온 나라 인민이 뭉친 혼연일체는 국가와 사회의 정치적안정과 공교성을 확고히 담보하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반공화국 《인권》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것은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를 허물려는데 있다. 그러나 령도자와 인민이 뜻과 정으로 결합하고 도덕과 의리로 뉴대를 이룬 조선의 혼연일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흔들려주거나 건드릴수 없는 제일가는 국력이다.

박춘남

수필

한장의 사진을 보며

사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나에게 집주인이 흥분해서 말했다.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곁에 계시는 원수님의 영상을 보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날 원수님께서 새집들이 한 우리들을 축하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다. 정말 그날의 영광을 잊을수 없다. 지금도 밭출을 들때면 그이께서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

시며 아침은 무얼 먹는가고 알아보시는데만같고 동자질을 할때쯤이면 땀방울이 너너한가고 물으시는것만 같다. 우린 언제나 원수님과 한심술이라는 생각뿐이다.

주인내외의 말을 들으며 나는 령도자와 인민간에 맺어진 혈연의 뉴대가 가슴뜨겁게 느껴졌다. 이 나라의 수많은 가정들에 모서려있는 경에하는 원수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가족사진들이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한가정이 되시어 그들의 생활을 보살피시는듯했다. 령도자는 인민에게 친어머니의 사랑과 정을 베풀고 인민은 령도자를 순결하게 받들며 한심술을 이룬 대가정이 바로 공화국이다. 고산지역 한 농민의 집에서 나는 이 땅에서만 볼수 있는 령도자와 인민간의 혈연의 뉴대를 다시금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리경순

남조선판 신나치스가 등장한다

남조선에서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의 치를 떨게 하는 《서북청년단》을 재건하기 위한 극우보수세력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서울에서 《세월》호참사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노란 리본을 제거하는 것으로 존재를 드러낸 이른바 《서북청년단재건준비위원회》가 지난 11월 말 그 무슨 《재건총회》라는 것을 열었다.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적화통일을 분쇄하는 극우운동을 펼칠것》이라고 하는 이자들은 《김구암살은 의지》, 《김구는 꼭두각시》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상에 띄우는가 하면 《해방직후》(서북청년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남조선은 적화됐을것》이라는 해피한 요언도 들고 《〈정부〉가 지원만 해주면 (중북세력) 들을 뿌리 뽑을 자신이 있다.》는 극우적인 망발도 제치고 있다.

남조선판 신나치스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명 《서북청년회》라고

불리온 《서북청년단》은 북에서 숙청된 지주, 자본가, 경찰, 헌병 등 악질 친일분자들과 그 자식들이 남조선으로 도망쳐가 1946년 11월 서울에서 조직한 극우반공단체이다.

《서북청년단》은 친미국 우세력의 물결대, 친위대가 되어 민주진보세력을 테로,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깡패집단이고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을 학살한 야수의 무리였다.

대표적인 것이 자주와 민주, 통일을 요구한 제도인민들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사건이다.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도 《서북청년단》 소속이고 대우노동자파업진압과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보도련범》 사건, 거창량민학살사건 등에도 《서북청년단》이 앞장서서 날뛰었다.

이자들이 1950년 조선전쟁 시기 미국이 키워준 총을 쥐고 과거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였음은 두말할 것 없다.

친일매국에 뿌리를 두고 해방직후 친미반공의 앞장

에서 날뛴 《서북청년단》은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민족을 저 깔러온 깡패무리, 반역집단이었다.

어떻게 되어 이런 저주로운 집단을 재건하겠다는 세력이 《서북청년단》의 재출현에 대해 남조선의 《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은 《그들의 자신감의 기반은 현 집권세력이 조성했다.》고 평하였다.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서북청년단재건준비위원회》의 활동배경에 력사의 후퇴와 당국의 《물밀행동》이 있다고 분석하고 《보수세력이 잃어버린 10년을 돌이켜보면서 집권 7년동안 력사를 역주행해 박정희, 리승만을 우상화하고 현대사의 마지막막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직후의 백색테러까지 미화한 것》이라며 《보수가 재집권한 후 보수원류를 친일독재에서 찾는다.》고 진단했다.

윤은 평가이다.

리명박 《정권》의 통산참사, 쌍용차로조잔압 등의

반인민적약정과 《좌파세력척결》을 전면에 내세운 공안탄압이 극심해지고 그 뒤를 이은 현 《정권》이 정보인 《대선》개입사건을 무력화하고 통합진보당해산과 《전교조》 불법화, 카카오톡에 대한 사찰 등 정치적 폭거의 로골화, 민주주의, 인권말살이라는 폭우를 몰아오자 장마철의 도끼떼와 같이 보수, 극우단체들이 활기를 띠게 되었고 《서북청년단재건준비위원회》와 같은 깡패무리도 벗적이 머리를 쳐들게 된 것이다.

과거 《서북청년단》의 배후에는 그들의 살인과 백색테러를 비호두둔한 보수집권세력이 있었다면 오늘날 《서북청년단》의 배후에는 사대굴종과 파쇼, 동족대결에 매달리는 현 보수집권세력이 서 있다.

지난 6월 현 남조선당국이 4.3인민봉기를 《공산주의세력의 무장봉기》로 표현한자를 안행정부 장관후보자로 내세우고 《서북청년단재건준비위원회》 대변인이라는 자가 《박사모》(박근

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이며 《〈서북청년단〉의 후신 구국결사대》 조직을 촉구한다는 망동을 부려도 당국이 그것을 눈감아주고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진보, 민주주의에 대한 편견과 앙심, 동족에 대한 극단한 증오로 무장되고 과거의 백색테러를 공공연히 떠드는 《서북청년단》의 재출현, 이들에게 테로의 명분과 활동무대를 마련해주는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 과연 남조선은 어디로 가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남조선민심의 평가로서 대신하고자 한다.

《〈서북청년단〉은 남조선에서 재현된 도이칠란드 나치친위대가 할 정도로 부끄럽고 끔찍하며 창피한 력사》

《〈서북청년단〉의 재건은 이 사회가 다시금 리진적공기와 사적폭력이 지배하는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는 징표》

남조선판파시즘인 《서북청년단》의 재건은 거꾸로 가는 남조선사회의 암흑상을 말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이해가 저물어가는데 그 속에 남조선보수당국이 반공화국 《인권》모락소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남조선 보수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정책의 물결대가 되어 유엔무대를 더럽히며 반공화국 《인권결의》 조악 놀음에 앞장서서 실레말을 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도 성가시잖아서인지 최근 남조선 보수당국은 《북인권결의안》을 올해중에 유엔안건보장리사회 의제로 상정시켜보겠다며 유엔안건보장리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발송한다. 유엔사무총장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하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고 있다.

세계에 충격받은 퍼슨사대로 인류가 미국의 치명적인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고있는 때에 이에 대해서는 입 한번 벌이지 못하는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넘볼처럼 외위대는 것은 식민지하수인으로서의 가련함그대로

않을 자리, 설자라도 가려보지 못하고 마구 떠들어대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반공화국 《인권》라떼는 맑은 달을 보고 찾아대는 개를 그대로 련상시킨다.

이미전에 공화국은 유엔에서 조직된 불법무도한 반공화국 《인권결의》와 관련한

여 그것을 주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미중유의 조강대용전을 신로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보고 심각속고 할 대신 미국의 부추김집에 반공화국 《인권》모락소동에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것은 북과 끝까지 해보겠다는것으로서 변함없는 동족대결야망의 산물이다.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려는것은 남조선의 사대굴종세력의 고질수 없는 악성질병이다.

사실상 남조선보수당국은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도 체면도 없다.

지금 남조선은 《유신》 독재부활과 보수당국의 반인민적 적악모습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권불모지로 전변되었다. 나라의 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 인사들이 파쇼독재의 칼날에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로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생존권을 요구하여 엄두설한에 거러에 나서고있는가 하면 지어는 한참은 세상을 저주하며 자살의 길을 택하고 있다. 에이런 무모한 생명들을 하루아침에 바다속에 수장시키기도 눈섭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인성이란 거울날의 대리석보다 더 차디찬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남조선인을 통째로 지옥으로 끌고간 것이다. 이런자들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니 뭐니 하고 집요하게 떠들고있으니 실로 삼은 소웃다가 꾸레미 터질노릇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미국의 충견이 되어 반공화국 《인권》모락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것은 날로 높아가는

모략과 날조의 명수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저들이 랍치해왔던 아홉명의 청소년들이 공화국에서 《처형》되었다니, 《수용소에 감금》되었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꿰치고있으니 너무도 황당하여 말이 나가지 않는다.

세상에 날조도 이런 생날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른바 《처형》되고 《수용소에 감금》되었다는 아이들중 여러명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국가의 관심과 배려속에 아무 근심걱정을 모르고 배움의 즐거움 나날을 보내고있고 수업후에는 동무들과 체육경기

도 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해가고있다. 얼마전 인터넷에 《우리 친구끼리》에도 이들을 소개하는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어요》라는 화면전들이 실린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멀쩡히 교실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 《처형》이니, 《감금》이니 하고있으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특등거짓말이 아닐수 없다.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게 꾸며내어 위독선전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대결세력이야말로 모략의 능수들이고 반공화국압살과 대결에 환장한 자들이다.

김성태 1중학교 교원 김달해

지금 적대세력이 벌리는 반공화국 《인권》소동도 이번 일과 마찬가지로 공화국에 한번도 와보지 못한 자들이 몇몇 인간쓰레기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진실을 파편치하게 위곡하며 헛것을 집다고 하는 모락소동의 극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은 절대로 가려울수, 의곡할수 없다. 대결광신자들이 사실을 날조하여 모략적인 《인권》소동에 매달리수록 세력면전에서 자라실신의 추한 모습만 드러내고 개코망신만 당하게 될 것이다.

김성태 1중학교 교원 김달해

종교의 탈을 쓴 평화파괴행위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대북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군부대원의 반공교육심리전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기독교총련합회》가 국방부의 승인아래 이날부터 애기봉등탑지역에 《점성소》 놀음을 위한 임시시설물 설치공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종교활동보장》을 이유로 시설물설치에 승인하였지만 그것이 실지 종교적목적에 위함것이 아니라라는것을 저들 스스로가 단 말 알고있을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국제법상 심리전이 전두행동으로 간주된다. 점성 놀고 볼 때 이것은 종교의 탈을 쓴 평화파괴행위이자 군사적충돌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최근 남부간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는 속에서 국방부가 종교단체를 앞세워 북에 대한 심리전을 강행하려 한다고 단죄하였다.

이로 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것은 군사분계선일대 주민들을 비롯한 국민들이라고 주장하였다.

심리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행동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0일 반공화국배리살포망동의 증진을 요구하였다.

민변은 북을 반대하는 배리살포소동으로 하여 군사분

계선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그로 인해 불안이 커가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원회》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국면의 반대로 불구하고 위협천만한 망동을 계속 하

빼리살포에 광분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주장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0일 반공화국배리살포망동의 증진을 요구하였다.

민변은 북을 반대하는 배리살포소동으로 하여 군사분

계선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그로 인해 불안이 커가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북한운동원회》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국면의 반대로 불구하고 위협천만한 망동을 계속 하

리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배리살포망동에 광분하는 극우보수단체들에 대해 벌금형에 이르기까지 법적제재를 가할것을 민변은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미국의 두 얼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저들이 랍치해왔던 아홉명의 청소년들이 공화국에서 《처형》되었다니, 《수용소에 감금》되었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꿰치고있으니 너무도 황당하여 말이 나가지 않는다.

세상에 날조도 이런 생날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른바 《처형》되고 《수용소에 감금》되었다는 아이들중 여러명이 지금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국가의 관심과 배려속에 아무 근심걱정을 모르고 배움의 즐거움 나날을 보내고있고 수업후에는 동무들과 체육경기

도 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해가고있다. 얼마전 인터넷에 《우리 친구끼리》에도 이들을 소개하는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어요》라는 화면전들이 실린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멀쩡히 교실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 《처형》이니, 《감금》이니 하고있으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특등거짓말이 아닐수 없다.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게 꾸며내어 위독선전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대결세력이야말로 모략의 능수들이고 반공화국압살과 대결에 환장한 자들이다.

김성태 1중학교 교원 김달해

지금 미국에서는 흑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백인경찰에 대한 뉴욕대배심의 기소포기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뉴욕을 비롯한 미국내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시위자들은 《차별주의경찰은 필요없다》, 《손을 들었으니 총을 쓰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리고있다.

그런 속에 이번에는 미국 서부 아리조나주에서 백인경찰관이 비무장흑인남성을 사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세계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인권에 문제가 있는듯이 코를 들이었고 자국내의 황폐화된 인권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있는 미국의 두 얼굴이다.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미국은 핵문제에서도 두 얼굴을 드러내고있다.

얼마전 유엔에서는 이스라엘의 핵무기포기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것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알려진이나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있는 이스라엘의 고화살과 항상 중동지역의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 이스라엘의 오만성과 포악성

들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런가하면 미태평양사령관은 《대북역사기》 실체할 경우 태평양사령부가 북을 격퇴할 준비가 되었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미국이 방대한 핵무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의 전쟁연습을 해마다 벌여놓기때문에 조선반도의 핵문제 발생하였고 공화국이 핵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두 얼굴을 바로 가려보아야 한다. 《국제헌법》으로 자처하며 독립기호 유엔무대를 어지럽히면서 유엔의 결의안도 휴지창취급하는 미국의 오만성에 대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 《인권》, 《민주주의》에 대해 열변을 토하지만 가장 열악한 인권사각지대, 인권불모지인 미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핵없는 세계》를 제창하며 세계의 비핵화에 관심있는듯이 오그만수를 쓰지만 새로운 핵실험장계를 운운하고있는 미국의 횡포에 대해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자유》, 《인권》, 《민주주의》, 《핵없는 세계》로 분철한 미국의 얼굴을 정의와 진리로 세척하면 테로, 독재, 전쟁, 핵위협이라는 미국의 흉악한 얼굴이 드러난다.

그것이 진짜 미국의 진면모이다.

김연희

지난 10일 미국에서 지금껏 비밀로 되어왔던 미중앙정보국(CIA)의 고문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의 일부가 공개되어 세상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폭로된데 의하면 CIA는 지난 2001년 9.11사건이후 《테로혐의》로 지목된 119명을 유럽과 아시아의 비밀감옥에 수감하고 악착하게 고문하였다.

이 가운데 26명은 최소한의 법적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감금한 사람들이다.

CIA원들의 고문방법은 실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물고물같은것은 레사였고 고 성고문과 모의처형, 전기드릴에 의한 위협 등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알몸뚱이체로 쇠사슬에 묶여놓아 얼어죽게 만들었다.

아무런 법적절차나 구속을 받지 않은것이 야만적이고 참혹한 고문행위였기때문이다.

대북 추소발표된 고문보고서를 놓고보면도 이러한 진면모가 드러나게 되면 세인은 더욱 경악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자국내에 물론 세계도처에 비밀감옥을 차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랍치구금하여 치명리

는 가혹한 고문행위를 일삼고있다.

2006년 9월 당시 미국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는 미중앙정보국 비밀감옥들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후에 알려진 데 의하면 미중앙정보국은 2002-2003년에만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타이, 마르코, 지부리, 모르니아, 리브라, 볼스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10여개의 비밀감옥들을 건설하고 100여명의 수감자들을 불법적으로 랍치구금하였다.

미중앙정보국은 수감자들에게 장시간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180시간 련속), 수감자를 랍성이 있는 벽에 짓뭇기, 근육약품을 자아내는 자새로 오랜 시간 서있게, 곤충이 들어있는 좁은 상자에 감금하기, 너정조사판들이 끼는 곳에서 감금으로 옷 벗기기, 《물에 빠진 흉내내기》(수감자를 판자에 눌러꽂고 묶어놓고 얼굴에 물붓는 고문) 등 가지가지의 온갖 비인간적인 잔인한 고문을 창안하고 꺼리낌없이 감행하여왔다.

미국이 이라크의 수용소들에서 수감자들에게 감행한 치명적인 악행 역시 오레전의 일이 아니며 세상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더우기 문제가 되는것은 미정부당국이 자국의 법과 국제법의 견지에서 미중앙정보국의 감옥들에 수감되어있

고있으며 인간의 자주적권리를 침탈한 유린당하고있다.

2012년 4월에 미국최고재판소는 감옥당국이 새로 들어오는 모든 죄수들을 범피의 엄중성정도에 관계없이 발가벗기고 감사를 할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하였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의해 미국에서는 벌금을 물지 않았다든 잘못된 죄명에도 체포되어 6일동안에 두번이나 이러한 굴욕적인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조등을 켜지 않거나 소음기가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소소한 위법행위로 억류된 사람들도 감사를 당하고 있다.

오늘도 미국은 인류의 눈을 피해가며 비법적인 랍치와 구금,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방법을 꺼리낌없이 저지르며 반인륜적죄악을 일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며 가스통에 놓아대는 고문왕국인 미국의 실모이다.

살인과 고문행위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미국은 그대대로 세계에서 제일 큰 감옥이 세 행를 차려놓은 고문전시장이다.

미국은 주제넘게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저들의 이중적인 《인권》자태를 들이대며 이래라저래하거 하기에 앞서 죄악에 찬 거울의 반인륜 범죄부터 깨닫기 결산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서희



미국에서 반인종주의 항의 시위

